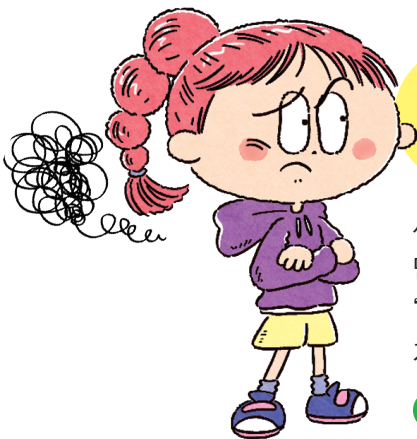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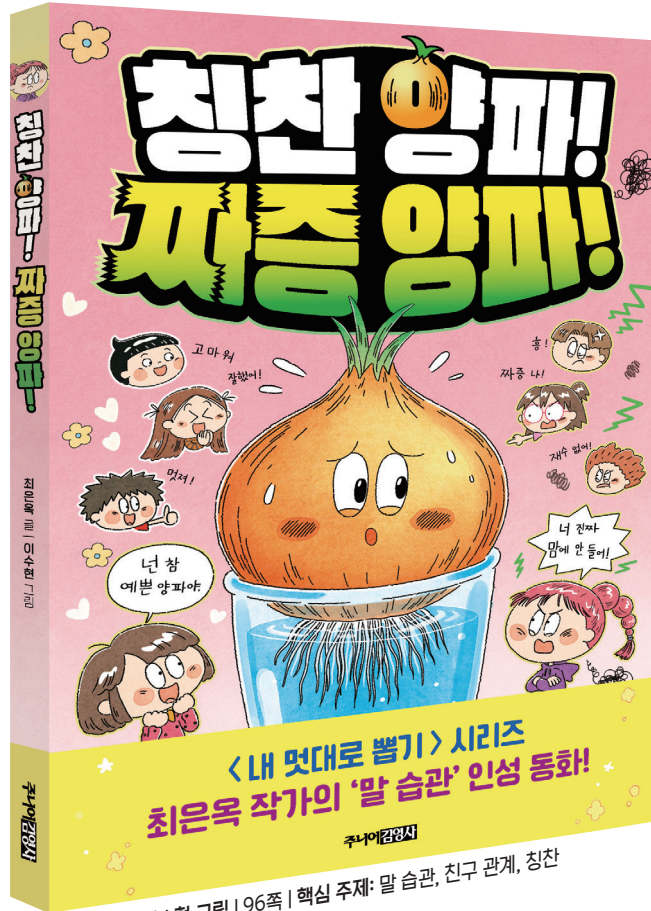


《칭찬 양파! 짜증 양파!》 독후 활동지



솔직한 말이라면 언제나 괜찮을까요?

세나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거침없이 말하는 아이예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세나의 말에 가족과 친구들은 자꾸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나는 교실에서 '칭찬 양파'와 '짜증 양파'를 키우게 됩니다. 양파와 친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조금씩 달라지는 세나의 이야기를 만나 보세요.

주제 키워드 #말의힘 #언어예절 #솔직함과배려#친구관계 #공감 #사과와화해

| 교과 연계 |

[국어2-1] 5. 마음을 짐작해요

[국어2-1] 7. 마음을 담아서 말해요

[국어2-2] 2. 서로를 존중해요

[국어2-2] 5. 바른 말로 이야기 나누어요.

[국어5-1] 1. 대화를 나누어요

[도덕3] 5. 너와 나의 공감

[도덕4] 3. 배려하는 우리



칭찬 양파! 짜증 양파!

독후활동지

()학년 ()반 ()번

이름 ()

★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요

🌸 활동 1.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을까요?

• 다음 사건을 이야기의 순서대로 배열해 보세요.

- ① 세나는 자기 양파에게 처음으로 좋은 말을 건넸어요.
- ② 다운이가 세나의 양파에게 말을 거는 걸 세나가 봤어요.
- ③ 아이들은 ‘그냥 양파’를 ‘짜증 양파’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 ④ 세나는 친구들이 자기 양파에게 날 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 ⑤ 세나는 다운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 → → →)

🌸 활동 2. 이야기 속 중요한 까닭을 찾아요

1. 세나의 양파는 왜 ‘칭찬 양파’가 되지 못했나요?

.....

.....

2. 아이들은 왜 ‘그냥 양파’를 ‘짜증 양파’로 바꾸어 불렀나요?

.....

.....

3. 세나와 다운이의 사이가 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

.....



★ 그 말을 들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활동 1. 세나의 말을 들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 엄마가 파마를 하고 왔을 때 세나는 엄마의 머리가 라면 같다고 웃었어요.

엄마의 마음은

- 친구가 새 머리띠를 하고 왔을 때 세나는 리본이 유치하다고 말했어요.

친구의 마음은

- 희철이의 양파를 보았을 때 세나는 양파가 작은 주인을 닮았다고 말했어요.

희철이의 마음은

활동 2. 세나의 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 엄마, 친구, 희철이에게 한 세나의 말을 다시 살펴보세요. 세나의 말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알맞은 것에 ○표 하세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고 말했어요. ()

자신의 생각을 놀리듯이 말했어요. ()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했어요. ()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이라면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여겼어요. ()

활동 3. 생각을 넓혀요

- 세나는 왜 상대가 속상해하는데도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요?

.....

.....



★ 솔직한 말일까, 함부로 한 말일까?

솔직한 말과 함부로 하는 말은 모두 생각한 것을 숨기지 않고 표현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 말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 **활동 1.** 다음 말을 읽고 알맞은 곳에 표시해 보세요.

	솔직하고 배려한 말	함부로 한 말	그렇게 생각한 까닭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아.”			
“그 리본은 유치원생한테나 어울리겠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나에게 말해도 괜찮아.”			
“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 **활동 2.** 말 신호등을 켜요

• 다음 말을 읽고 알맞은 신호등에 표시하세요.

초록불: 상대의 마음을 생각한 말 **노란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말
빨간불: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 ① “네 양파는 못생겼어.” 초록 노랑 빨강
- ② “나는 네 생각과 조금 달라.” 초록 노랑 빨강
- ③ “그 옷은 너랑 하나도 안 어울려.” 초록 노랑 빨강
- ④ “괜찮다면 내가 도와줄까?” 초록 노랑 빨강



★ 같은 생각도 다르게 말할 수 있어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내 생각을 전하도록 말을 바꾸어 보세요.
배려하며 말하려면 이런 표현을 써 보세요.

“나는 _____ 라고 생각해.”
 “혹시 _____ 해 보는 건 어때?”
 “괜찮다면 내가 _____ 할게.”

 **활동 1.** 엄마의 새로운 머리 모양이 낯설어 보였어요.


- 세나의 말: “너무 뽀글거려서 머리에 라면을 뒤집어쓴 것 같아.”

내가 바꾸어 말한다면: _____

 **활동 2.** 친구의 리본 머리띠가 내 취향과 달랐어요.

- 세나의 말: “이렇게 큰 리본은 좀 유치하지 않아?”

내가 바꾸어 말한다면: _____

 **활동 3.** 친구가 학예회 연습에서 자꾸 실수했어요.

- 세나의 말: “그것도 제대로 못 해?”

내가 바꾸어 말한다면: _____



★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해요 ①

세나는 예전에 다운이가 자신에게만 말한 가족 이야기를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 버렸어요. 세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운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로 했어요.

🌸 **활동 1.** 다운이의 마음을 생각해요.

- 다운이는 왜 세나에게 화가 났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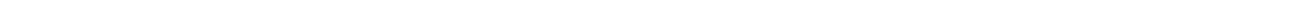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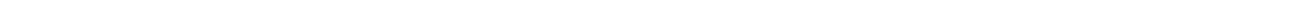


- 세나가 '거짓말보다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 **활동 2.** 세나의 잘못을 돌아봐요.

- 세나는 자신이 상처를 줬던 말에 대해 무엇을 깨달았나요?





★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해요 ②

🌸 활동 3. 진심을 담아 사과해요.

진심으로 사과할 때에는 다음 내용을 담아 말하면 좋아요.

-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해요.
- 변명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해요.
- 상대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생각해요.
-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약속해요.

• 세나가 되어 다운이에게 사과하는 말을 써 보세요.

다운아, 내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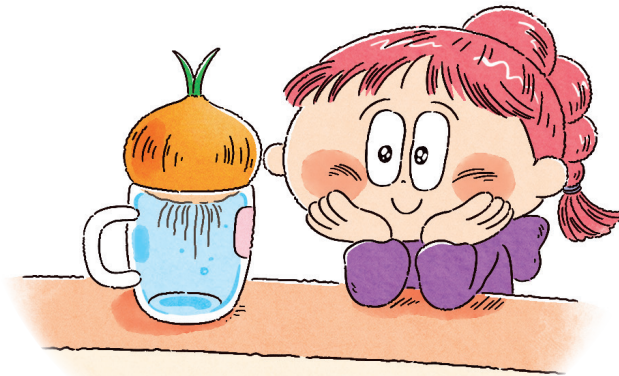
네가

했을 것 같아.

.....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





★ 나의 말도 잘 자라게 해요

활동 1. 내 말 습관을 돌아봐요.

① 내가 자주 하는 말:

② 이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

③ 앞으로 바꾸어 말한다면:

활동 2. 마음 속에 칭찬 양파를 키워요

• 꼭 전하고 싶은 따듯한 말을 미리 써 보세요.

